

고대 목간의 형태 재분류와 고려 목간과의 비교

성산산성 목간을 중심으로

Reclassification of Forms of Ancient Wooden Tablet(Mokgan) and Its Comparison with Goryeo Wooden Tablet

저자 (Authors)	한정훈 Han, Jeong-hun
출처 (Source)	목간과문자 16 , 2016.6, 161-184(24 pages)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16 , 2016.6, 161-184(2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목간학회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770906
APA Style	한정훈 (2016). 고대 목간의 형태 재분류와 고려 목간과의 비교. 목간과문자, 16, 161-18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3:3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고대 목간의 형태 재분류와 고려 목간과의 비교*

—성산산성 목간을 중심으로—

한정훈**

- I. 머리말
- II. 고대 목간 형태 분류에 관한 재검토
- III. 성산산성 목간의 형태 재분류
- IV. 맺음말; 고려 목간과의 형태 비교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고대 목간과 고려 하찰목간의 형태 비교를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한 전제 작업으로 고대 목간의 형태를 분류하던 중 선행 연구에서 구멍형 목간을 소홀히 다루었음을 알게 되었다. 고대 목간의 형태와 용도를 대략적으로 검토한 결과, 백제 목간을 중심으로 삼국시대에는 구멍형 목간이 荷札 뿐 아니라 편철용 문서목간, 신분증표용 목간, 주술용 목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장방형과 홈형 그리고 일정한 기능을 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뾰족한 형상[尖形]과 더불어 구멍형도 고대 목간 형태의 분류체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양자의 형태 비교에서 손쉽게 확인된 내용은 고대 목간에서 다면형이나 원주형 목간이 어렵지 않게 확인되는데 반해, 고려시대 목간은 기본적으로 두께가 얇은 板材形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고려시대 목간이 荷札이기 때문에 짐 꼬리표로서 부피가 작고 두께가 얇은 장방형이 부착하기에 편리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대 목간에서 여러 형태가 확인되는 것은 목간이 다양한 용도로 널리 이용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통일신라를 거치면서 목간의 용도가 축소됨에 따라 고려시대에는 그 형태도 단순화된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9314).

* 목포대학교 사학과

것이다.

뒤이어 동일한 용도의 하찰목간인 성산산성의 것과 고려시대 목간의 형태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고·중세를 막론하고 좌우 양쪽에 홈을 낸 목간이 하찰목간의 전형이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홈형 목간의 비율이 고려시대에 더욱 높아진 것은 하찰목간 형태의 정형화나 규격화가 보다 진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려시대는 짐에 부착하기 위한 가공 부위로서 홈이 보편화되면서 荷札목간에서조차 구멍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 핵심어: 구멍형 목간, 성산산성 목간, 짐[荷物], 하찰목간

I. 머리말

2007년은 한국 고·중세사학계에서 특별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고려시대 木簡의 최초 발견과 목간 자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 해 1월에 木簡을 비롯한 문자자료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목간학회가 탄생하였다. 1970년대부터 차곡차곡 쌓인 목간 자료에 대한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목간 연구 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학회를 창립한 것이다.¹⁾ 그리고 10월에 목간학회의 창립을 축하하기라도 하듯이 고려시대 목간을 海底에서 발견하였다. 그때까지 목간 문화를 공유한 주변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중세시기의 목간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향해 도중에 침몰한 도자기 운반선, 2만점 이상의 도자기와 함께 이에 관한 정보를 담은 고려시대 목간이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 문화재 발굴의 역사에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큰 경사였다.

2007년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고려시대 최초의 목간은 다음 해 6월에 한국목간학회 논문집인 『목간과 문자』 창간호를 통해서 연구자들에게 상세히 알려졌다.²⁾ 이어서 마도1호·2호·3호선 목간의 기본적인 현황과 판독 내용이 차례대로 『목간과 문자』 5호·6호(이상 2010년)·8호(2011년)에 실렸다. 이때만 하더라도 목간학회의 활동만큼이나 고려시대 목간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이후 『목간과 문자』에 고려시대 목간에 관한 기획논문은 커녕, 개별 연구논문이 실린 적이 거의 없다. 한국 목간 연구의 전문 학회에서 이처럼 고려시대 목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료 축적의 부재와 연구자의 무관심 때문일 것이다.³⁾

1) 한국목간학회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창립취지문 참고.

2) 임경희·최연식, 2008, 「태안 청자운반선 출토 고려 목간의 현황과 내용」, 『목간과 문자』 창간호.

3) 2015년 8월에 최초의 조선시대 조운선과 60여 점의 목간이 발굴되었다고 보고되었다(문화재청, 「보도자료-최초의 조선시대 조운선, 600년 긴 잠에서 깨어나다」, 2015.8.26). 마도4호선으로 명명된 이 고선박의 발굴은 최초의 조선시대 해양 문화유산이라는 역사적 의미 뿐 아니라 古代로부터 전승되어 온 조선시대 목간 문화의 전개양상도 살필 수 있다는 점에 목간학 연구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자는 고려시대 목간 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일본학계의 연구 방법에서 힌트를 얻어 목간의 형태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네 차례의 수중 발굴을 통해 확인된 고려시대 목간의 형태를 하나의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그 결과를 일본 중세 목간·신안선 荷札목간과 비교하였다.⁴⁾ 본 연구는 고려시대 목간의 형태를 동시대 여타의 목간과 비교한 선행 연구의 후속작업에 해당한다. 애초에 고려시대 하찰목간과 古代의 대표적인 하찰인 성산산성 목간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고·중세 목간 문화의 변화상을 고찰하고자 계획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자의 형태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우선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한국 고대 목간의 형태분류체계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소개한 중세 목간의 형태에 관한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하찰목간의 형태 분류는 무조건 세분화하는 것 보다 목간의 부착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상의 특징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목간의 형태를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고대 목간에서 더러 확인되는 가공 부위인 구멍을 선행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분류 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II장에서 마련한 목간의 형태분류 기준에 따라 성산산성 목간을 재분류할 것이다. 荷札인 성산산성 목간은 구멍의 有無에 따라 짐[荷物]에 부착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에 논의되었던 형태 분류 요소(홈·尖形)에 구멍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III장에서 다룬 성산산성 목간의 형태에 관한 여러 내용과 고려 목간의 형태상 특징을 비교하여 고·중세 목간 문화의 변화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고대 목간 형태 분류에 관한 재검토

목간 연구가 본격화한 2000년대부터 목간 용도 등의 성격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 목간의 형태에 주목하였다.⁵⁾ 하지만 고대 목간은 水中에서 건져 올린 고려시대 목간과 달리 땅 속에서 발굴된 탓에 墨書는 물론 缺落의 정도가 심하여 형태 파악이 쉽지 않았다. 또한 40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30·40군데가 넘는 여러 유적지에서 많게는 10여 차례에 걸쳐 수습되었기 때문에 고대 목간을 일원적인 기준에 따라 형태를 분류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목간의 형태 분류에 관해서는 이미 두세 차례 논의가 진행되었다. 개별 발굴 보고서나 연구논문에서 목간의 형태에 관한 고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요 연구자로 이용현·윤선태·이경섭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우선 이용현은 고대 목간의 형태를 笏形·파임형·막대형·가로형·꼬리표형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흘형은 長方形 혹은 短柵形, 파임형은 홈형, 막대형은 다각형 혹은

자들이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4) 한정훈, 2015, 「동아시아 중세 목간의 연구현황과 형태 비교」, 『사학연구』 119, 한국사학회.

5) 윤선태,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p.39.

원형의 단면을 가진 棒形 그리고 꼬리표형은 광의의 附札을 각각 의미하였다.⁶⁾ 이어 윤선태는 목간의 형태에 용도까지 고려하여 편철간이 아닌 단독간을 細長形·多面·圓柱形·方形·附札形·기타 형식의 목간으로 분류하였다. 형태가 아닌 용도에 따른 분류인 부찰형은 끈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멍이나 홈이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⁷⁾ 그리고 이경섭은 長方形形·多面形·圓柱形·홈형·기타 형태로 구분하였다. 그는 형태상의 세밀한 분류가 명칭이나 용어에서의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용현이 파임형으로, 윤선태가 부찰형으로 부른 V자형의 홈이 새겨진 목간의 형태를 홈형이라 불렀다.⁸⁾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연구에 따라 한국 고대 목간의 형태를 분류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일환으로 고대 목간의 일원화된 형태분류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목간학회처럼 형태상의 특징에 따라 보다 세밀하게 분류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⁹⁾ 하지만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은 개별 목간의 형태와 이용법 상호간의 관계 파악에 또 다른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¹⁰⁾ 그런 만큼 현재 확인된 목간의 형태를 중심으로, 특히 목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목간의 형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의 세 견해 중 이경섭이 제시한 분류기준이 형태적인 특징을 비교적 잘 고려하여 한국의 목간 현황을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題籤軸·인형목간·男根목간·목간 부스르기 등을 포함하여 ‘기타 형태’를 설정하기 이전에 일본 고대나 중세시기 목간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였던 가공 부위인 구멍이나 상·하단의 뾰족한 형상[尖形]도 형태 분류의 기준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제안이 타당성을 가지는 것은 본고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들 형태를 띤 고대 목간이 일정량 이상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멍과 뾰족한 형태[尖形]가 일본의 목간 연구에서 주요한 형태 분류요소로 활용되었던 점은 참고할 만하다. 尖形의 경우는 일본 고대목간의 형태상 특징을 장방형·홈형·하단 칼끝 모양[劍先形=尖形]이라 단순화하여 나눈 연구 성과의 지적처럼 뾰족한 모양은 일본 고대 부찰목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¹¹⁾ 그렇지만 홈이 기능적인 측면이 큰 부위인 데 반해 頭部(端部)의 모습이나 劍先形[尖形]의

6) 이용현, 2006,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p.8.

7) 윤선태, 2007, 「한국고대목간의 형태와 종류」, 『역사와 현실』 65: 2007, 「한국고대목간의 출토현황의 종류」,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이야기』, 주류성, pp.74-77.

8) 이경섭, 2013,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pp.21-27. 이상의 세 연구자가 제시한 목간의 기본형태 분류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고대 목간의 기본 형태					
	홈형	파임형	꼬리표형	막대형		가로형
이용현	홈형	파임형	꼬리표형	막대형		가로형
윤선태	세장형	부찰형		다면 목간	원주형	기타 형태
이경섭	장방판형	홈형		다면형	원주형	기타 형태

9) 박지현, 2013, 「백제목간의 형태분류 검토」, 『목간과 문자』 11.

10) 필자는 이전 연구에서 목간의 형태를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이 번잡할 뿐 아니라, 여타 목간과의 비교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고려 목간과 신라신 목간의 형태를 하찰목간의 기능에 직결되는 형태를 기준으로 단순화시켜 재분류하였다(한정훈, 2015, 앞의 논문).

형상은 제작자에 따라 그 형상이 달라지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견해¹²⁾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필자도 이전의 연구에서 일본 고대목간과 달리, 뾰족한 모양[尖形]이 고려시대 목간에서 일부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형상이 예리하지 못하여 어떠한 기능을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¹³⁾ 그래서 고대 목간의 형태 분류에서 상·하단의 尖形은 일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자 한다.

하지만 뾰족한 모양[尖形]에 비해 구멍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비록 일본 고대 목간 연구에서 형태 분류의 주요 요소로 주목하지 않았지만,¹⁴⁾ 일본 중세의 草戸유적 목간에서 구멍형 목간이 전체 목간의 60% 전후에 이르거나 신안선 목간에서도 12% 정도 차지할 만큼 구멍은 동아시아 중세 목간에서 주요한 가공 부위였다. 실제로 구멍의 有無는 일본 중세 목간이나 신안선 목간에서 주요한 형태 분류 요소로 적용되었다.¹⁵⁾ 다음 장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서 구멍형 목간이 15점 가량 확인될 뿐 아니라, 선행 연구에서도 구멍의 有無를 형태 분류에 포함시켜 논지를 진행한 적도 있었다.¹⁶⁾ 이러한 구멍이 목간의 활용에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였는지, 그리고 한국 고대 목간의 형태상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대 목간의 형태를 用도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¹⁷⁾ 이러한 이해방식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타당하면서도 적절한 연구 방향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고대 목간의 형태 분류체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별 목간의 용도가 불명확한 점을 고려한다면 양자를 연결시킬 때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윤선태와 이경섭은 고대 목간의 용도별 분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논의의 쟁점은 典籍목간과 사람에 부착된 목간으로 휴대용 목간(符信用과 過所用 포함)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¹⁸⁾ 필자는 두 연구자의 견해를 수렴하여 기본적으로 이경섭의 분류에 따르되 윤선태가 제시한 휴대용 목간도 대분류의 하나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경섭은 휴대용 목간이 국가행정의 영역에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문서목간의 용도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본다면 문서목간의 범주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분류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와 함께, 목간의 용도나 형태 등을 고려할 때에 ‘휴대용 목간’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도 고대 목간의 용도를 이해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11) 三上喜孝, 2009, 「形態와 記載樣式으로 본 日本古代木簡의 特徵」, 『목간과 문자』 3, p.95.

12) 友田那々美, 2003, 「古代荷札の平面形態に關する考察」, 『木簡研究』 25.

13) 한정훈, 2015, 앞의 논문. 고대 목간 전체는 검토하지 못하지만, 성산산성 하찰목간의 尖形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14) 일본 고대목간의 특징적인 형태는 ①短冊形, ②단책형의 상, 하 양단 혹은 一端을 잘라 홈을 넣은 것, ③材의 一端을 칼끝 모양으로 날카롭게 한 것이다. 다만 일본의 목간학회 등에서 활용하는 형태 분류체계에 ‘短冊形으로, 측면에 구멍을 뚫은 형태(015형식)’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三上喜孝, 2009, 위의 논문).

15) 이상의 내용은 한정훈, 2015, 앞의 논문 참고.

16) 전덕재, 200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목간과 문자』 3.

17) 대표적으로 이경섭은 주로 문서목간은 장방관형·다면형·원주형 목간들이, 꼬리표목간은 홈형 목간이, 그리고 기타 용도의 목간은 그 용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목간이 각각 제작된 것으로 이해하였다(앞의 책, 2013, p.31).

18) 윤선태, 2007, 앞의 논문, pp.177-183; 이경섭, 2013, 앞의 책, pp.27-31.

〈표 1〉 구멍이 확인되는 고대 목간 현황

유적지	목간 번호	기본 형태 및 구멍의 특징	용도 및 기타	
백제	부여 관북리	283번	하단 결락/ 상단 한쪽으로 치우쳐 구멍을 뚫음	
		285번	하단 결락, 상단 둥근형/ 상단 구멍 흔적 훼손	문서목간 (장부 표지용)
		286번	완형(길이가 짧은 직사각형)/ 상단 중앙에 구멍이 위치	후대용 목간(符信), 낙인 있음
		287번	286번과 형태 동일	낙인 없음
		288번	완형/ 상단에 구멍	
	구아리	19번	상단에 구멍	뒷면에 목서 흔적
		91번	상단에 구멍	목서 없음
	궁남지	315번	완형/ 상단 목서 사이에 작은 구멍	문서 목간
	능산리 사지	295번	완형/ '남근형 목간' 하단부에 구멍	기타 목간(呪術用)
		298번	완형/ 상단에 구멍	후대용 목간(符信用)
	쌍북리 280-5	'外椽部'銘	완형(짧은 직사각형)/ 상단부에 전형적인 구멍	짐꼬리표[荷札] 목간
		'佐官貸食記'銘	완형/ 상단부 중앙에 전형적인 구멍	외량부 곡물 출납 관련 문서목간
	쌍북리 현내들	85-4번	우측에 얇은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5개 있음	자(尺)일 가능성
		85-8번	앞·뒤면 2행의 두 번째 글자가 구멍으로 인해 훼손	丁數 기재, 문서목간
		85-10번	상단 중앙에 구멍, 목흔 없음	
		87번	뒷면에 가로로 홈을 파고 그 상하에 각각 구멍을 뚫어 전면의 목서가 훼손	
		95번	첫 번째 글자가 구멍으로 인해 훼손	
		105번	상단에 구멍	
	나주 복암리	5번	완형/ 상단 중앙에 구멍, 두 번째 글자가 구멍을 피해 쓴 흔적	촌락문서 목간
		6번	완형/ 상·하단부에 구멍	문서목간(封緘목간)
		8번	상단에 구멍, '작년분 곡물 3석을 진상함'이라는 목서 내용	荷札목간
		11번	완형/ 상부 중앙의 구멍 아래에 3자의 목서 확인	
		12번	완형, 위아래 둥근 마무리/ 상부에 ◇형태의 구멍	후대용목간(符信用)
14번		완형/ 상단부에 구멍		
신라	월성해자	33번	상단에 전형적인 구멍 확인, 하단 결실	목흔 X
		77번	상단에 반투공 상태의 구멍 확인	목흔 X
	안압지	42번(200번)	상단에 뚜렷하고 큰 구멍, 구멍 왼쪽 훼손	명문 '辛番' 추정
		245번	상단 중앙에 구멍, 상단부 둥글게 마무리	목흔 X
	화왕산성 연지	1번	아래·위 구멍이 두 개씩 있는 목간 세 개가 하나의 세트로 추정됨, 하단 결실	기타 목간(주술용)
이성산성	4차 9번(21번)	3개의 원형 구멍		

* 성산산성 목간 제외

이상과 같이 고대 목간의 형태와 용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보았다. 한국 고대 목간의 형태에 관한 보다 명확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성산산성 목간을 제외하고 구멍이 확인되는 고대 목간 사례를 일람하면 <표 1>과 같다.

지금까지 출토된 고대 목간에서 성산산성 목간을 제외하고 구멍이 확인되는 목간은 대략 30점이다. 다음 장에서 살필 성산산성 목간까지 감안하더라도, 구멍이 있는 목간의 비율은 신라 보다 백제 목간이 더 높다. 백제목간 214점(목간 부스러기 125점 포함)에서 구멍이 확인된 목간은 <표 1>과 같이 24점이다.¹⁹⁾ 반면에 신라 목간 561점에서 구멍이 확인되는 목간은 성산산성 목간 15점을 포함해도 21점이다.²⁰⁾ <표 1>에 실려 있는 목간 대부분은 목서의 판독과 용도 등의 성격 구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주요 목간에 관한 내용을 통해 구멍형 목간의 대략적인 특징이나 경향성만을 언급하려 한다.

우선, 부여 관북리 285번 목간은 兵器의 分與에 관한 기록부(장부)의 표지로 사용된 문서목간으로 이해된다. 상단의 구멍 한쪽이 파괴된 것은 폐기될 때에 목간의 두께가 얇아 묶여 있던 끈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¹⁾ 286번 목간은 상단에 구멍을 뚫고 둥글게 마무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길이가 짧은 목간의 규격(9.3cm), 烙印이 찍힌 점 등에서 조선시대의 號牌와 매우 유사하다. 이로 인해 嶺夷城의 官人이 왕궁에 공무로 출입할 때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符信목간'이라는 견해를 제기하였다.²²⁾ 286번과 유사한 형태의 287번 목간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높다.

궁남지 315번 목간은 상단 약간 아래쪽의 목서 사이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러한 형태의 목간은 쌍북리 '佐首貸食記'銘 목간, 복암리 5번 목간과 크기나 구멍의 위치 등이 서로 유사하여 문서 목간으로 활용된 목간 형태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내용을 기재하기 위해 비슷한 크기로 미리 이런 형태의 목간을 여러 개 만들어두고 기재할 내용이 많다면 목간들을 차례차례 끈으로 편철해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²³⁾ 이 목간의 용도에 대해서 인력 이동과 연결된 過所목간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대부분 조세

19) 백제 목간 현황과 형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박지현의 논문(2013)을 참고하였지만, <표 1>에서 제시한 구멍형 목간 현황은 다음의 해당 발굴보고서나 연구논문을 통해 수집하였다(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韓國의 古代木簡(개정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부여 관북리백제유적 발굴보고』 3; 심상욱·이미현·이효중, 2011, 『부여 '중앙성결교회유적' 및 '뒷개유적' 출토 목간 보고』, 『목간과 문자』 7;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2, 『부여 구아리 319 부여중앙성결교회 유적』; 국립부여박물관, 2007, 『능사: 부여 능산리사지 6~8차 발굴조사보고서』; 충청문화재연구원, 2009, 『부여 쌍북리 현내들·북포 유적』; 朴泰祐·鄭海濬·尹智熙, 2008, 『扶餘 雙北里 280-5番地 出土 木簡 報告』, 『목간과 문자』 2;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0, 『나주 복암리유적』; 김성범, 2010, 『羅州 伏岩里 出土 百濟木簡의 考古學的 研究』,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 신라 목간 출토 현황은 이경섭 저서(2013, p.15)를 참고하였다. 2012년 성산산성 16차 발굴조사 때까지 확인되는 목간 개수를 299점으로 보고, 2013년 8월 기준으로 총 561점 중에서 목서가 확인되는 목간을 341점으로 집계하였다. <표 1>의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위의 책;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 『월성해자: 발굴조사 보고서 2』; 김창석, 2010, 『창녕 화왕산성 蓮池 출토 木簡의 내용과 용도』, 『목간과 문자』 5; 전덕재, 2009, 앞의 논문; 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韓國木簡字典』).

21) 윤선태, 2007, 앞의 책, pp.166-172.

22) 윤선태, 2013, 『백제목간의 연구현황과 전망』, 『백제문화』 49, p.251 재인용.

나 役 징발과 관련이 있는 戶籍과 같은 기록류나 장부적 성격의 문서목간으로 보고 있다.²⁴⁾ 그리고 능산리 목간의 대표적인 형태인 소위 ‘男根形’의 呪術목간인 295번 목간에도 하단부에 구멍이 뚫려 있다. 298번 목간은 묵서 선두에 官位(奈牽)가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상단의 구멍에 끈으로 매달아 허리 등에 늘어뜨려 휴대하다가 특정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 제출되었던 신분증명서(符信목간)로 이해한다.²⁵⁾

쌍북리 280-5번지의 ‘外掠部’銘 목간은 외량부에서 鐵의 대가로 지방에서 가져와 창고로 거두어 들인 綿 10兩의 포대에 붙어 있던 荷札목간으로, ‘佐官貸食記’銘 목간은 외량부에서 곡물의 출납과 관련이 있는 문서목간으로 각각 추정한다.²⁶⁾ 쌍북리 현내들에서는 6점의 구멍형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3점의 목간에서 구멍에 의해 묵서가 훼손된 공통점이 확인된다. 85-8번 목간은 앞·뒤면 2행의 두 번째 글자가, 95번 목간은 첫 번째 글자가 각각 구멍으로 인해 훼손되었고, 87번 목간은 흠과 상하의 구멍에 의해 묵서가 훼손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이들 목간의 구멍은 한 차례 폐기된 뒤에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때 뚫은 것으로 추정된다.²⁷⁾

다음으로 백제목간의 최대 출토지인 나주 북암리의 65점 중 구멍이 확인되는 목간은 앞의〈표 1〉과 같이 6점이다.²⁸⁾ 5번 목간은 앞의 궁남지 315번 목간과 같이 상단 1.8c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구멍을 피해 아래·위로 위치한 묵서가 확인된다. 내용상 일종의 촌락문서에 해당하는 문서목간으로 추정된다. 상·하단에서 구멍이 확인되는 6번 목간은 문서 목간으로 국내 최초의 封緘목간으로 이해된다. 봉함목간은 주로 관청에서 문서나 물건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목간의 한 형태이다. 8번 목간은 진상된 곡물에 딸린 荷札목간으로, 11번 목간은 떨어져 나간 상부에 반투공 상태의 구멍이 있어 제작 도중에 폐기된 것으로 추측한다. 그리고 상부에 ◇형태의 구멍이 있는 12번 목간은 위아래가 모두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고 ‘軍那지역의 德率이라는 사람이 안전하게 이르렀다’는 묵서 내용으로 신분 증표용 목간으로 판단된다.

적지 않은 양인 105점의 신라 목간이 출토되었던 월성해자 유적에서 0.4cm의 전형적인 구멍이 뚫린 목간은 33번 목간뿐이다. 이마저도 묵서가 없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가공과정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반투공의 구멍이 확인되는 77번 목간도 부러져 5.5cm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 묵서도 없어 성격 구멍이 쉽지 않다.²⁹⁾ 마찬가지로 안압지 42번과 이성산성 21번(4-9) 목간도 결실이나 묵서명이 없어 그 성격을 구

23) 윤선태, 2013, 앞의 논문, p.252. 하지만 윤선태는 북암리 3번·6번 목간도 유사한 형태를 띠었다고 했는데, 〈표 1〉과 같이 3번 목간은 구멍이 없고 6번 목간은 상·하단 양쪽에 구멍이 있어 유사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24) 박지현, 2013, 앞의 논문, p.38.

25) 近藤浩一, 2004, 『扶餘 陵山里 羅城築造 木簡의 研究』, 『百濟研究』 39; 이재환, 2014, 『扶餘 陵山里寺址 유적 출토 목간 및 사설』, 『목간과 문자』 12, p.133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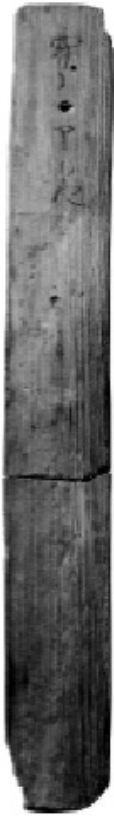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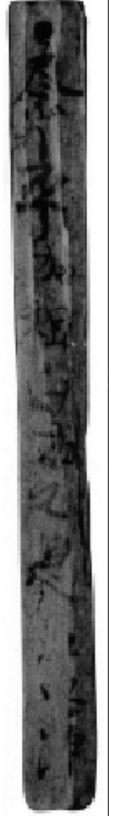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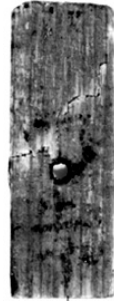
26) 朴泰祐·鄭海濬·尹智熙, 2008, 앞의 논문.

27) 이판섭·윤선태, 2008, 『扶餘 雙北리 현내들·北浦유적의 조사 성과 -현내들유적 출토 百濟木簡의 소개』, 『목간과 문자』 1, p.300.

28) 북암리 목간에 대해서는 김성범의 박사학위논문(2010)을 참고하였다. 다만 김성범은 6번 목간에 구멍(투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9) 3번 목간 중간 아래쪽에 네모형의 구멍이 확인되지만, 일단은 파손된 흔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림 1〉 한국 고대 주요 구멍형 목간

							
관북리 285번							
							
안압지 42번	궁남지 315번	능산리 295번	능산리 298번	쌍북리 外椽部銘	쌍북리 佐官貸食 記銘	현내들 목간	복암리 5번

명하기 어렵다. 다만 화왕산 연지의 1번 목간은 주술·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목간 세 조각을 겹쳐 못 두 개를 박아 결합한 흔적으로 세 목간 모두 아래·위로 구멍이 두 개씩 확인되고 있다.³⁰⁾ 통상의 경우처럼 구멍이 목간을 매달기 위해 가공한 것이 아니라 세 목간을 결합하기 위해 박은 못의 흔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총 30점의 구멍이 있는 목간을 대략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구멍의 직경이 지나치게 크거나 모양이 네모형인 경우와 같이 크거나 모양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다. 성산산성 목간을 포함하더라도 신라 보다는 그나마 백제 목간의 그것이 더 정교하면서 정형화되어 있는 듯하다. 그리고 모든 목간이 앞서 제시한 목간의 기본 형태 중 장방(판)형에 구멍이 뚫려 있는 특징을 보였다. 즉 고대 목간에서 다수 확인되는 다

30) 김창석, 2010, 앞의 논문.

면형이나 원주형 목간에서는 구멍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표 1>에 제시한 구멍형 목간 중에 흠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없었다. 물론 능산리사지 295번 목간 상단을 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男根形 목간의 형상 일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장방형·다면형·원주형·흠형의 기본 형태와 중복되지 않는 구멍형 목간을 또 다른 형태로 상정해도 별무리가 없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구멍은 끈으로 연결하여 목간에 매다는 가공 부위이므로, 구멍형 목간은 성산산성 목간과 같이 荷札로 활용되었다. 쌍북리 280번지 '外椽部'銘 목간과 복암리 8번 목간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표 1> 내용과 같이, 구멍에 연결된 끈을 통해 목간을 휴대하기가 편리하였기 때문에 구멍형 목간은 신분 증표용(관북리 286번, 능산리사지 298번, 복암리 12번 목간)으로 활용되거나 각종 문서 내용을 기록하여 끈으로 편철하기가 용이하였기 때문에 문서 목간으로도 제작되었다(관북리 285번, 궁남지 315번, 쌍북리 '佐官賃食記'銘 목간, 현내들 85-8번, 복암리 5번·6번). 특히 대표적인 휴대용 목간인 신분 증표용[符信] 목간에서 다수 확인되듯이 구멍의 편리함을 잘 활용한 사례와 달리, 현내들 목간 3점에서 구멍은 기능이 다한 목간을 재활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화왕산성 1번 목간의 구멍은 위와 같이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가졌기보다는 단순히 세 토막의 목간을 結束하기 위한 못의 흔적이었다.

한국 고대 목간에서 구멍의 확인 사례가 많은 만큼 위와 같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구멍의 다양한 활용도를 고려하면, 주로 흠형 목간이 광의의 附札 木簡에서만 확인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한국 고대시기 구멍형 목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상호간의 비교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남기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내용을 고려하면 한국 고대 목간의 형태 분류에서 구멍의 有無는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목간의 상·하단 모서리의 형상(尖形 포함)과 달리 구멍의 경우는 목간의 용도나 기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태 분류 기준에 꼭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III. 성산산성 목간의 형태 재분류

지금까지 300점 이상 출토된 함안 성산산성 목간류에 관한 연구는 많은 양이 축적되어 개별 연구 성과를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이다. 목서 내용과 기재양식 그리고 書體, 목간의 규격이나 형태, 목간의 樹種 등 목간 자체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목간의 제작연대와 용도 나아가 목서 내용 분석을 통해 당시의 지방통치체제나 수취체제 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³¹⁾ 이 장에서는 세부 주제 중 성산산성 목간의 형태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검토한 다음, 16차 발굴조사 때까지 보

31) 관련 연구 성과 중 연구사 정리를 위주로 한 주요 연구논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이정설, 2004, 「咸安 城山山城 木簡의 研究現況과 課題」, 『新羅文化』 23; 이용현, 2006, 「함안 성산산성 목간」,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전덕재, 2008,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신라문화』 31; 전덕재, 2012, 「한국의 고대목간과 연구동향」, 『목간과 문자』 9; 이정설, 2013,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 연구의 흐름과 전망」, 『목간과 문자』 10).

고된 목간의 형태를 재분류하여 여타의 고·중세 목간과의 형태 비교에 활용하고자 한다.

성산산성 목간의 형태에 관한 논의를 위한 전제로 목간의 用途가 무엇인가에 관한 研究史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 연구에서 목간의 용도는 가장 주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크게 짐[荷物]의 附札(荷札)로 보는 견해, 名籍 혹은 신분증으로 보는 견해, 名籍과 附札로 구분하는 절충적 견해로 나뉘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목간에서 확인되는 稗·稗一·稗石 등을 곡물로 볼 것인가, 外位로 볼 것인가에서 기인하였다.³²⁾ 이후 구멍이 있거나 흠이 파여 있는 목간의 형상이 짐에 부착되었을 가능성과 [지명+인명+외위+(물품명+수량)]이라는 기재양식에 의거하여 물품에 부착된 荷札 木簡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짙어졌다.³³⁾

2007년 발굴 조사와 목서명의 판독을 통해 '稗'자가 목서된 목간들이 荷札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지만, 모든 목간이 하찰 목간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세부적인 분류작업도 이어지고 있다.³⁴⁾ 현재 목서 내용상 문서목간으로 추정되는 것은 3점 정도로, 축성에 동원된 役夫에 관한 문서로 추정되는 169번 목간을 비롯하여 278번과 280번 목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문서목간은 네 면의 다면목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³⁵⁾ 또한 짐에 부착된 荷札[짐꼬리표] 목간과 달리, 275번 목간과 같이 물품꼬리표[物品附札] 목간의 존재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양자의 구분을 통해 성산산성 목간의 용도가 더욱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성산산성 목간의 절대 다수가 貢進物에 부착된 荷札[짐꼬리표]목간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그렇다면 荷札로 이용된 성산산성 목간의 형태는 어떠하였는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성산산성 목간의 형태에 대한 관심은 尹善泰와 平川南에 의해 시작되었다.³⁶⁾ 윤선태는 목간의 형태 뿐 아니라 기재내용까지 고려하여 8개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平川南은 I 하부 좌우에 흠이 파인 것, II 하부에 구멍이 있는 것, III 하부에 흠이나 구멍이 없는 것, IV 缺損으로 불분명한 것의 4종류로 분류하였다. 이후 이용현은 平川南의 분류방식을 활용하여 2차 보고분 完形 37점을 검토한 다음, 목간 모두가 흠이나 구멍이 있거나 하단부가 圭頭形인 형태상의 특징을 근거로 하찰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³⁷⁾

이어서 전덕재는 발굴·보고된 2007년도 분까지 포함하여 성산산성 하찰목간의 형태와 그 특징에 대해

32) 이경섭, 2004, p.219. 참고로 꼬리표[附札]목간은 물품의 이동성 여부에 따라 짐꼬리표[荷札]과 물품꼬리표[物品附札]로 나뉜다(이경섭, 앞의 책, pp.28-29).

33) 이용현은 李成市(2000, 「韓國木簡연구의 현황과 咸安城山山城 출토의 木簡」, 『韓國古代史研究』 19)와 平川南(2000, 「日本古代木簡 研究의 現狀과 新視點 -咸安 城山山城 출토 목간」, 『韓國古代史研究』 19)의 견해를 적극 수용하여 이와 같은 논지를 전개하였다(2006, 앞의 책, pp.351-374).

34) 전덕재, 2008, 앞의 논문, pp.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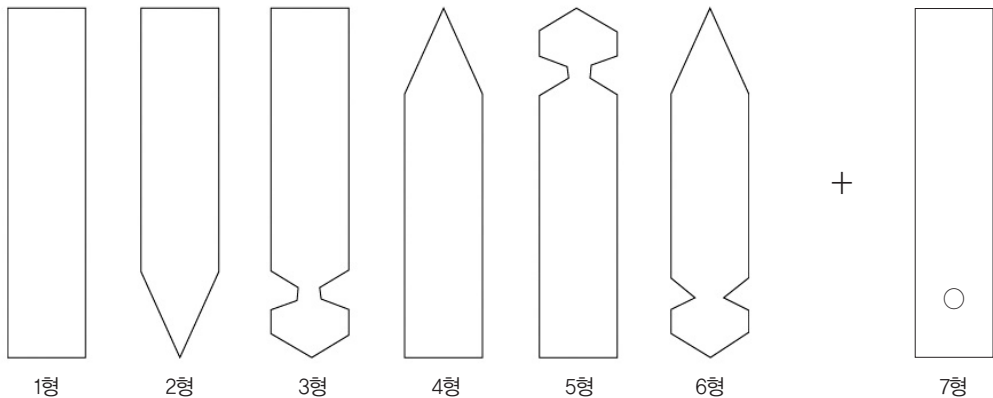
35) 이경섭, 2013, 앞의 논문, pp.80-82. 전덕재는 앞의 논문(2012, p.24)에서 위의 세 점 뿐 아니라 275·276·279번 목간까지 문서목간으로 파악하였지만, 275번과 276번 목간은 윤선태의 연구(2012,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 荷札의 再檢討」, 『史林』 41)에 의해 각각 물품꼬리표와 짐꼬리표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279번 목간은 목서 내용의 판독이 쉽지 않아 제외시켰다. 개별 목간의 일련번호는 후술하는 註40·41)에 의거하여 부여하였다.

36) 尹善泰, 1999,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木簡의 用途」, 『震檀學報』 88, pp.4-12; 平川南, 2000, 앞의 논문, p.135.

37) 이용현, 2006, 앞의 책, pp.367-368·pp.388-389. 여기서 말하는 규두형은 본문에서의 침형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이전 연구가 장방형과 홈형 목간으로만 구분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단부와 하단부의 모양, 홈의 형태 등을 근거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³⁸⁾ 이 기준에 따라 성산산성 하찰목간의 형태를 분류한 결과, 地名(목간 제작지)에 따라 목간 형태상의 정형성(지역색)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 자료는 국내 출토 부찰·하찰 목간의 형태 비교를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이 분류체계는 성산산성 하찰목간을 총 25개 유형(하단 5개×상단 5개)으로 나누어 이해한 탓에 하찰목간의 형태상 특징을 파악하기에 지나치게 번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홈이나 구멍이 표시된 쪽을 하단부로, 그것의 반대쪽을 상단부로 규정한 것도 통상적인 목간의 상·하단부 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후술하는 <표 2>와 같이 목서가 시작하는 상단부에 홈이나 구멍이 뚫려 있는 목간(4형·5형)이 10점 가량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의적인 구분방법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성산산성 목간을 발굴·조사하여 고대 목간 연구의 메카로 자리 잡은 가야문화재연구소(前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11년에야 비로소 목간의 형태 분류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³⁹⁾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은 장방형 목간을 1형, 하단부가 뾰족한 형상[V자형·尖形]의 목간을 2형, 하단부에 홈[切込部]이 있는 목간을 3형, 상단부가 뾰족한 형상의 목간을 4형, 상단부에 홈이 있는 목간을 5형 그리고 하단부에 홈이 있고 상단부가 뾰족한 형상의 목간을 6형으로 분류하였다(<그림 2> 참고). 앞서 소개한 전덕재의 분류체계와 달리 홈의 형태(모양)가 가지는 특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홈의 有無만을 기준으로 삼은 점이



<그림 2> 성산산성 목간의 형태 재분류

38) 전덕재가 제시한 성산산성 하찰목간의 형태 분류표는 다음과 같다(200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목간과 문자』 3).

구분	대분류	중분류
하단	단책형(I형)	하단부에 구멍이 없는 것(M형) / 구멍이 있는 것(N형) ; 두 유형
	홈이 파져 있는 것(II형)	홈 부분의 하단부가 'ㄷ'자형으로 마감된 것(①형) / 圭頭形(V형)으로 마감된 것(②형) / 不定形으로 마감된 것(③형) ; 세 유형
상단	'ㄷ'자형인 것(A형) / 圭頭形(Λ형)인 것(B형) / 아치형(∩)인 것(C형) / 기타(D형) / 형상을 알 수 없는 경우(?) ; 다섯 유형	

39)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IV, pp.270-271.

나 뾰족한 형상[V자형]도 단순화하여 구분한 점이 특징적이다. 필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산산성 하찰목간의 형태상 특징을 여타 고대 목간이나 고려시대 하찰목간과의 비교를 전제로 할 때에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단 일정한 역할이 부여된 홈이나 구멍의 有無 그리고 뾰족한 형상[尖形]을 형태분류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그림 2〉와 같이 가야문화재연구소(2011년)에서 제시한 성산산성 목간의 형태 분류체계(1형~6형)에 앞 장에서 언급하였던 구멍형 목간(7형)을 추가하여 성산산성 목간의 형태를 다시 구분하였다. 그런데 성산산성 목간의 경우는 20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발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별 목간의 일련번호조차 통일적으로 부여하지(numbering) 않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전체 목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최근에 성산산성 목간의 정리 현황을 재검토하여 개별 목간에 일련번호

〈표 2〉 성산산성 목간의 형태 분류 통계표(단위: 점)

구분 \ 형태	1형	2형	3형	4형	5형	6형	7형	소계	미상
별표 1면	6	1	11(5)	2	0	1	2		7
별표 2면	4(1)	3	18(1)	0	0	2(2)	1		4
별표 3면	1	0	7(7)	0	0	0	1		23
별표 4면	11	1	7(2)	0	1	0	1		4
별표 5면	2	0	6(2)	0	0	1(1)	2		7
별표 6면	7(3)	0	12(4)	0	0	1	2		3
별표 7면	3	0	17(2)	1	2	7(5)	0		2
별표 8면	5(2)	1(1)	6(1)	0	0	3	2		10
별표 9면	3(1)	0	14(2)	0	2	1	2		5
별표 10면	7(1)	1(1)	15(3)	0	0	0	2		5
보고서 V	0	0	9(5)	0	2	1	0		2
합 계	49	7	122	3	7	17	15	220	72
비율(%)	22.3%	3.2%	55.5%	1.4%	3.2%	7.7%	6.8%	100%	

* 목간 형태를 1~7형로 구분한 것은 앞의 〈그림 2〉 내용에 의거함.

** 구분에서 별표 1~10면은 최상기, 앞의 논문(2013)에 부기된 별표의 면수이고, 보고서 V는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V(2014), pp.113-115을 지칭함.

*** ()는 형태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목간의 개수를 나타냄.

**** 성산산성 전체 목간 중 제침축은 제외, 본 장에서 문서목간으로 분류한 169·278·280면 목간은 포함. 또한 별표 5~6면에 인용한 「함안 성산산성 1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2007. 12. 13)의 17점의 목간 형태는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추후 확인이 필요.

를 제시한 연구 성과가 나왔다.⁴⁰⁾ 따라서 필자는 또 다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 성과의 일련번호를 받아들이고, 뒤이어 16차 발굴조사로 추가된 21개의 목간(題籤軸 7점 포함)까지 포함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⁴¹⁾

앞의 <표 2>는 『발굴조사 보고서』Ⅳ(2011)에서 제시한 형태 분류체계에 구멍이 뚫린 목간과 未詳을 추가하여 개별 목간의 형태를 구분한 것이다. 우선 형태 미상의 대부분은 파편이지만 형태 분류의 주요 부위인 상·하단부가 缺落된 것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단부 홈이 명확한 62번 목간은 상단부가 부러져 있어 3형인지 4형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이다. 목간의 형태를 크게 장방형 이외에 홈과 구멍 그리고 尖形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 이유는 성산산성 목간도 짐[荷物]에 부착한 荷札이므로 그 여부에 따라 짐에 부착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짐에 부착하기 위한 아무런 가공을 가하지 않은 장방형(1형) 목간은 49점으로 형태 확인이 가능한 목간(220점)의 22.3%를 차지하는 만큼 성산산성 목간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아무런 부착 부위를 가공하지 않았던 1형 목간은 비교적 손쉬운 공정한 구멍을 하단부에 뚫어 짐에 연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뒤에 제시한 <표 3>의 구멍형 목간 15점 중에서 기본 형태가 1형인 목간이 7점을 차지하는 것에서도 그러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할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2형·4형과 3형·5형은 각각 尖形(V자형)과 홈이 위치한 방향이 上端이나 下端이냐에 따라 구분된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목간이 목서의 시작지점(상단) 반대편에 부착 부위(홈·尖形·구멍)가 가공된 성산산성 목간의 주요한 특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한 분류 기준이다. 실제로 2형(하단 尖形)·3형(하단 홈형)과 달리 4형(상단 尖形)·5형(상단 홈형) 목간에서 목서가 시작되는 상단에 부착 부위가 가공된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형·3형과 별도로 4형·5형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

40) 여러 종류의 간행물(발굴보고서, 현장설명회 자료집, 도록, 자전 등)에서 성산산성 목간의 일련번호를 개별적으로 부여하거나 누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최초로 보고된 목간으로부터 2011년에 간행되었던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보고서』Ⅳ(2011, 11, 27) 분까지 1번~281번의 번호를 부여하였다(최상기, 2013,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정리현황 검토』, 『목간과 문자』 11, 한국목간학회). 본고에서 기존의 『韓國木簡字典』(가야문화재연구소, 2011)의 일련번호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字典』에는 목서가 없는 목간을 비롯하여 목간 일부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41) 281번 목간에 이어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보고서』Ⅳ에 수록된 나머지 목간(30개)과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보고서』Ⅴ(2014, 11)에서 확인되는 21점의 목간까지 포함시켜 1번~332번 목간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최상기는 『보고서』Ⅳ에서 확인되는 126~155번(도면번호 604~633번) 목간이 이미 넘버링한 목간의 중복일 가능성도 제기하였지만, 일단 이 글에서는 개별 목간으로 인정하여 번호를 매겼다.

구분	최상기, 앞의 논문, 2013, 별표	『발굴조사 보고서』Ⅳ	『발굴조사 보고서』Ⅴ
		도면번호 604~633번	연번 156~176번
부여한 일련번호	1~281번	282~311번	312~332번
목간 개수	281개	30개	21개

위의 표와 같이 성산산성 목간의 일련번호는 제침축(21개)을 포함하여 332번에까지 이른다. 성산산성 목간의 개수와 일련번호의 정리에 대해서는 차후의 후속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일단 본고에서는 목간 개수를 최대치로 잡아 1번~332번 목간 중 제침축을 제외한 목간의 형태를 확인하여 그 특징을 고찰하는 것에 주안을 두었다.

다.⁴²⁾

하단부가 뾰족한 형상의 2형 목간은 총 7점(18·53·54·55·101(무흔)·238·283번 목간)이고, 이와 반대로 목서가 시작되는 상단이 뾰족한 4형 목간은 총 3점(26·28·205번 목간)이 확인된다. 두 유형을 합쳐도 전체의 4.5% 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일본 고·중세 하찰목간의 주요한 형태 중 하나로 알려진 尖形이 성산산성 하찰목간에서는 널리 활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형과 4형 목간은 刀子로 ‘V’자 형태로 뚜렷하게 깎은 점이 확인되지만, 이 형태가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찰목간에 가공된 뾰족한 형상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짐[荷物]에 폭 찌르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흠에 묶은 끈으로 짐을 결박하고 뾰족한 부분은 짐을 묶은 끈의 아래를 끼워 넣어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성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³⁾ 그런데 짐의 대부분이 곡물류인 성산산성 목간에서 뾰족한 형상의 목간이 소수라는 점은 尖形이 짐에 폭 찌르기 위한 가공 부위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성산산성 목간의 첨형은 짐에 찌르기에, 끈을 고정시키기에, 각의 예리함 등에서 적절치 않은 모양을 하고 있다.⁴⁴⁾ 또한 상단이 뾰족한 4형과 6형의 목간이 짐에 꽂혔다면, 목서가 뒤집어져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착 방식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 이처럼 성산산성 목간에서 상·하단부가 尖形인 목간은 그 비율이 낮으면서 어떠한 기능을 부여하기도 쉽지 않다. 설령 목간을 곡물류의 짐에 찌러서 연결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尖形의 기능과는 큰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고려시대 하찰목간에서도 확인된다.⁴⁵⁾

尖形과 달리 흠[切込部]은 성산산성 하찰목간의 부착방식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우선 목간 하단부에 흠을 파 넣은 3형 목간이 형태 파악이 가능한 목간의 55.5%(122/220점)나 차지한다. 여기에 6형, 즉 3형 목간에서 상단부를 尖形으로 가공한 형태까지 포함하면, 하단부에 흠이 파인 목간의 비율은 60% 이상에 이르게 된다.⁴⁶⁾ 3형과 6형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일단 6형은 상단이 뾰족한 ‘^’형에 한정하여 하단에 흠이, 상단에 尖形이 각각 가공되어 여타의 목간보다 刀子로 정교하게 다듬은 것에 국한하였다.⁴⁷⁾ 반면 3형 목간은 상단이 ‘—’자형 뿐 아니라 등근형·斜線形 그리고 꺾거나 부러뜨린 흔적이 있는 목간까

42) 총 3점의 4형 목간 중 299번은 파편이면서 무흔이고, 총 7점의 5형 목간 중 263번과 326번은 무흔이 있지만 그 방향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 목간에서는 목서가 시작하는 상단부에 尖形이나 흠이 확인되고 있다.

43) 岡内三眞, 1987, 『新案沈船出土の木簡』, 『東アジアの考古と歴史(上)』, 岡崎敬先生退官記念事業會, pp.549-553.

44) 부경역사연구소 월례연구발표회(2015년 11월 6일)에서 본 논문의 토론자였던 양석진 학예연구소(가야문화재연구소)는 53번 목간을 비롯한 몇 점의 첨형 목간이 좌우 뿐 아니라 앞뒤면도 모서리를 향해 각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끈을 끼워 넣어 고정시키기에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3번 목간의 하단 첨형은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45) 고려 목간에서 尖形이 차지하는 비율이 5%도 되지 않고, 그마저도 너무 무디고 각도가 없어 어떠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한정훈, 2015, 앞의 논문).

46) <표 2>에서 목간의 형태가 불분명한 경우는 ()로 개수를 표시하였는데, 3형에서 특히 괄호()가 많이 확인되는 것은 3형과 4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6형의 221번 목간은 상단이 부러져 있는데, 상단에도 하단과 마찬가지로 흠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상·하단 양쪽에 흠이 있는 목간의 형태도 상정해 볼 수 있다.

47) 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앞의 보고서 IV, p.270에서도 6형 목간은 상·하단의 가공 뿐 아니라 표면까지 매우 매끄러운 목간으로 제작에 상당한 노력을 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 포함하였다. 이처럼 기능적인 측면과 관련이 없으면서 일정한 정형성도 확인되지 않는 상단부의 모양을 선행연구에서는 5가지로 나누기도 하였다.⁴⁸⁾ 그런 만큼 총 17점이 확인되는 6형의 목간 중에서 상단의 뾰족한 모양이 3형의 그것과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⁴⁹⁾ 또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6형 목간의 상단이 尖形이라 하더라도 각도가 크지 않아 어떠한 기능을 지녔기보다는 목간 제작자의 기호이거나 특이사항 등을 표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3형과 6형 목간 상호 간에 상단부 모양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기능상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하단부 홈형의 목간이 성산산성 하찰목간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5형 목간은 가장 많은 형태인 3형을 뒤집어 놓은 것으로, 하찰목간의 주요한 부착방식인 홈이 하단이 아니라 상단에 위치하는 목간이다. 총 7점(124·206·217·263·276·325·330번 목간)⁵⁰⁾으로 3.2%의 소량에 그치지만, 목서가 시작되는 상단에 홈이 있기 때문에 홈에 묶은 끈을 짐에 연결시키면 결국에는 바로 매달려 있게 된다. 반대로 하단에 홈이 있는 3형과 6형 목간은 짐[荷物]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꼴이 된다. 즉 5형의 하찰목간이 3형 보다 목간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에는 편리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목간의 정보가 짐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3형과 6형의 하찰목간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인 연구자들이 먼저 관심을 보여 목간의 상단이 아닌 하단부에 홈이 있는 점이 일본 고대의 하찰목간과 형태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三上喜孝는 성산산성의 하찰목간을 물품에 붙인 상태에서 글자를 썼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 경우에 목간의 상단보다 하단에 홈을 파 놓는 것이 편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단부가 고정되어 있으면 쓰기 편한 각도를 조절하기가 어렵지만, 하단부의 홈이 끈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書寫者가 목서를 쓰기에 편리한 각도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였다.⁵¹⁾ 결국 3·6형 목간이 목서의 서술 방향과 달리 홈을 하단부에 가공한 것은 정보의 표시나 확인 보다는 書寫작업의 편리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하단 홈형 목간의 정보는 거꾸로 매달려 있지만, 사람들이 정보를 보려고 목간을 들면 그 내용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단 홈형 목간(5형)보다 훨씬 더 편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단 홈형인 3·6형 목간을 압도적으로 많이 제작한 것이다.⁵²⁾

48) 註 38) 참고.

49) 41번과 42번 목간, 194번과 195번 목간, 198번과 199번 목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 목간의 전자는 6형으로, 후자는 3형 목간으로 짐작하였다.

50) 이 중 276번 목간은 엄밀히 말하면, 6형의 목간이 아래 위가 바뀌어 있는 형태이다. 신안선 하찰목간의 전형적인 형태로, 별도의 형태 상정이 가능하지만 일단 6형으로 분류하였다.

51) 三上喜孝, 2007, 「일본 고대 목간에서 본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특징」,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의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pp.90-91.

이러한 흠 다음으로 주요한 부착 부위로 활용된 구멍을 뚫은 목간을 7형으로 새로이 추가 분류하였다. 초기 연구⁵³⁾ 때부터 성산산성 목간을 荷札로 보는 주요한 근거 중 하나로 흠과 함께 구멍에 주목하였지만 지금까지 구멍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찰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구멍형 목간은 여타 형태의 목간 보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산산성 목간 중 구멍형 목간의 현황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구멍형 목간은 총 15점으로 전체 목간의 6.8%로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물론 위의 목간을 구멍형 목간으로 분류하였지만, <표 3> 내용과 같이 장방형(1형)이나 첨형(2형·4형) 목간에 추가하여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이다. 이처럼 구멍이 없다고 가정하고 어떤 형태에 속하는지를 따져 본 이유는 구멍의 역할(기능)을 짐작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개별 목간에 구멍이 없다고 가정하면, 1형에 7점, 2형에 3점, 4형에 1점 그리고 미상에 4점이 각각 분포하였다. 이에 반해 흠이 있는 목간 유형(3·5·6형)에서는 구멍이 뚫린

<표 3> 성산산성 구멍형 목간 분석

목간 번호	유사한 목간 형태	형태상 특징	목서명
10번	1형 (장방형)	下端에 구멍	仇伐于好財村卑尸稗石
61번		두 동강난 목간 하단부에 구멍	□□支村/□□(女)稗石
189번		하단에 작은 구멍	仇(利伐)□□□(智)
233번		하단에 구멍(충흔)	上弗刀弥村/敬麻古稗石
261번		하단에 구멍	(仇)(之)
262번		우측에 치우쳐 구멍	목흔
310번		아주 큰 구멍	무흔
133번	2형 (하단 尖形)	하단에 구멍	仇利伐 比夕須奴 先能支負
135번		하단에 구멍	王私烏多伊伐支卜侏
230번		하단에 구멍	買谷村物礼利/ 斯玆于稗石
299번	4형 (상단 尖形)	세 동강난 목간에 구멍	무흔
5번	미상	하단에 아주 선명한 구멍	목흔
68번		글자를 피해 우측편에 구멍(충흔)	千竹利
96번		파편에 구멍이 뚜렷이 확인	(石)/□
158번		하단에 구멍	(仇利伐) 末甘村 借刀利(支)稗

52) 이러한 흠의 위치에 주목하여 일본 고대 목간의 계통성이 상단에 흠이 있던 백제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이경섭, 2013, 앞의 책, pp.349-350).

53) 李成市, 2000, 앞의 논문; 平川南, 2000, 앞의 논문.

목간이 한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것은 흠의 기능과 구멍의 역할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굳이 중복하여 그 부위를 가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공 부위(구멍·흠)의 역할은 짐작 가능하듯이, 墨書에 다수 확인되는 荷物인 稗나 짐을 의미하는 負(133번 목간)에 부착하는 것이었다.⁵⁴⁾

구멍은 부착을 위한 가공방법으로 흠에 비해 간단하였다. 흠형에 비해 훨씬 개체 수가 적은 구멍형 목간은 아무런 가공 흔적이 없는 장방형의 1형 목간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이것은 짐에 부착하기 위한 기능을 보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형의 목간 중 262번은 도면상 상단에 구멍이 뚫려 있지만, 목흔을 통해 상·하단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단에 구멍이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렇다면 1형의 목간에 있는 구멍은 기본적으로 하단부에 있는 것으로, 3형과 6형의 흠형 목간처럼 성산산성 하찰목간의 구멍과 흠의 가공 부위는 하단에 위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⁵⁵⁾

그리고 下端 尖形의 2형 목간에서 구멍형 목간이 3점 확인된다. 만약 흠·구멍과 마찬가지로 뾰족한 형상[尖形]도 짐에 부착하는 기능에 직결되었다면, 뾰족한 부위에 구멍이 뚫려져 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림 3> 참고). 하지만 2형의 133·135·230번 목간에는 부착 부위(구멍과 첨형)가 하단부에 중복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尖形이 짐[荷物]에 연결하는 기능이 없거나 강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뾰족한 부위가 짐에 꽂혔다면, 이 구멍의 기능은 더욱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尖形은 짐에 꽂기 위한 가공 부위가 아니었음이 짐작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尖形 보다는 구멍이 부착 방법으로서 더 효과적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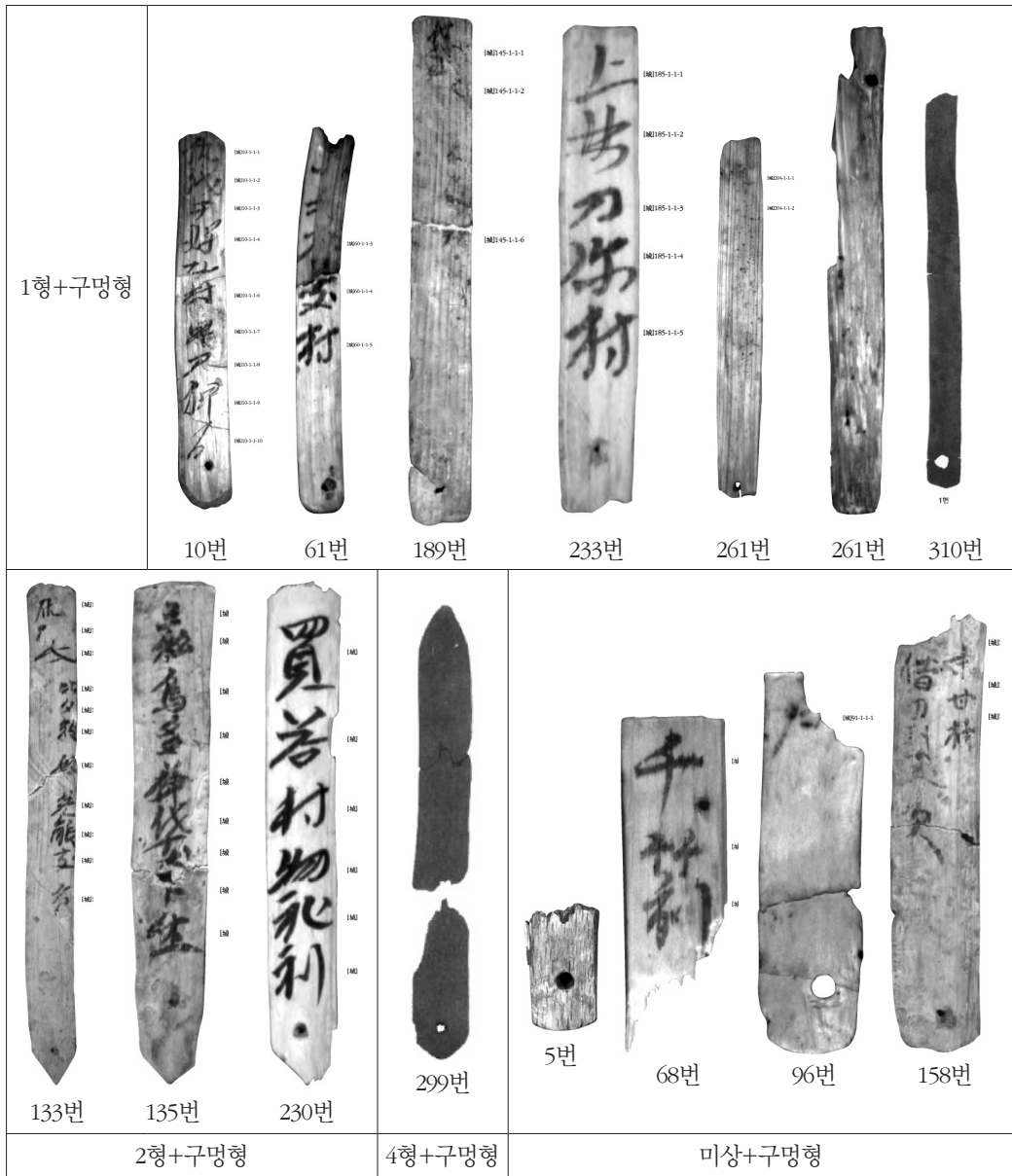
<그림 3>과 같이 형태는 미상이지만 구멍이 있는 목간 4점 중 5·96·158번 목간은 하단부에 구멍이 확인될 뿐, 2형의 尖形이나 3형의 흠이 없어 1형의 장방형 목간일 가능성이 크다. 즉 뾰족하거나 흠이 없었기에 짐에 부착할 목적으로 구멍을 뚫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구멍이 뚫린 목간에는 흠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찰 목간의 주요한 부착방법인 흠이 있을 경우에는 구멍을 뚫지 않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장방형의 1형과 뾰족한 형상의 2형(4형) 목간에서 보다 확실히 하찰에 부착하기 위해 추가로 구멍을 뚫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구멍형 목간과 같이, 가장 보편적이던 부착 부위인 흠을 우선시하면 전형적인 3형 뿐 아니라 방향을 달리한 5형 그리고 상단에 뾰족한 형상이 있지만 하단에 흠이 있는 6형도 넓게 보면 흠형 목간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전체 목간의 절반을 훨씬 넘는 형태가 흠형 목간이다(146/220점). 개수가 많은 만큼 향후 흠형 목간에 관한 세밀한 고찰도 요구된다.⁵⁶⁾ 그래서인지 앞서 소개한 전덕재의 선행 연구는 흠의 모양에 따라 형태를 세밀하게 분류하기도 하였다.⁵⁷⁾ 하지만 필자는 흠의 모양이 기능적

54) 稗石이나 負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 된다(이수훈, 2004,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의 稗石과 負』, 『지역과 역사』 15).

55) 구멍이 뚫린 15점 중 형태 미상의 68번 목간만이 예외적으로 상단부의 글자 사이에 구멍이 있다. 이것은 목서를 먼저 적은 이후에 짐에 부착할 목적으로 글자를 피해 구멍을 뚫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6) 45·284·302번 목간처럼 흠의 파인 부분이 너무 얇은 경우나, 97·184번 목간처럼 목간의 크기에 비해 흠 모양이 너무 작아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의문스러운 경우도 있다.



〈그림 3〉 성산산성 구멍형 목간 사진

인 측면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류 기준에서 제외시켰다. 뿐만 아니라 가공 부위의 기능을 우선시하여 하찰목간의 부착 방식에 따라 성산산성 목간의 형태를 분류하기 위해 상·하단의 뾰족한 형상과 홈 뿐 아니라 구멍의 有無도 중요한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57) 註 38) 참고.

IV. 맺음말; 고려 목간과의 형태 비교

앞의 Ⅱ·Ⅲ장에서 서술한 주요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하여 고려 목간 형태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앞서 성산산성 목간을 비롯하여 고대 목간에 관해 상세하게 고찰하지 않은 채 형태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양자의 비교는 형태와 관련된 통계 수치를 근거로 전체적인 경향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Ⅱ장에서 언급한 고대 목간 관련 내용을 고려시대 목간의 형태에 견주어 보면 다음의 내용을 언급할 수 있다. 우선 고대 목간의 형태상 특징 중 하나로 다면형이나 원주형이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는 점이다.⁵⁸⁾ 하지만 6~7세기와 달리 8세기 이후로는 다면형 목간이 현격히 줄어드는 대신에 부찰형 목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이러한 목간 형태상의 변화는 종이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목간이 담당하던 기록문화의 상당 부분이 종이로 옮겨 가면서 일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⁹⁾

현재까지 고려시대 목간에서 다면형이나 원주형의 목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태안선·마도1·2·3호선의 원형 목간은 모두 두께가 얇은 板材의 목간이다. 더욱이 고려시대 전체 목간(175점)의 60%에 이르는 竹札의 두께는 木札보다 얇다. 해당 보고서에 두께가 표기된 마도3호선 목간의 예를 들면, 목찰의 두께는 적어도 0.5cm 이상이지만 죽찰의 경우는 대부분이 0.17~0.3cm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중세 草戸유적의 목간은 두께/너비의 비율이 0.6 이상인 角材形 목간이 전체 목간의 40~50%에까지 이르고 있다.⁶⁰⁾ 비슷한 중세시기이지만 한·일 목간에서 두께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적으로 목간의 用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 목간은 짐 꼬리표[荷札]이기 때문에 부피가 작고 얇은 긴 직사각형(長方形)이 부착하기에 편리하였다. 반면에 고대 목간에서 확인되는 다면형이나 원주형 목간은 書辭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주로 摺書用 목간이나 문서 목간으로 활용되었다.

이렇게 고대 목간에서 다면형 및 원주형 목간을 비롯하여 여러 형태의 목간이 확인되는 만큼 문서목간, 꼬리표[附札] 목간, 휴대용 목간, 기타와 같이 목간의 용도가 다양하였다. 이에 비해 현재까지 고려시대 목간으로 하찰목간만이 발견되는 것은 단순히 출토 현황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 기본적으로 고려시대는 古代보다 書辭자료로서 종이의 활용이 훨씬 광범위하였기 때문에 목간을 이용하는 기록문화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도 고대 목간 현황을 분석하여 삼국시대까지 文書로도 널리 사용되었던 목간의 용도가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문서용은 크게 줄어들고 주로 물품에 부착된 꼬리표로 사용되는 경향을 언급하였다.⁶¹⁾ 결국 삼국시대에 장방형 뿐 아니라 원주형 및 다면

58) 朴仲煥, 2002, 「韓國 古代木簡의 形態의 特性」, 『國立公州博物館紀要』 2; 윤선태, 2007, 앞의 책, pp.53-74.

59) 윤선태, 2007, 앞의 책, pp.71-74. 엄밀히 말하면 부찰형 목간은 형태에 따른 분류로 보기는 어렵다.

60) 한정훈, 2015, 앞의 논문, p.246 재인용.

61) 전덕재, 2012, 「한국의 고대목간과 연구동향」, 『목간과 문자』 9. 해당 논문에서 통일신라시대의 변화상을 설명하는 근거로 8세기 안압지 출토 목간만을 제시하고 있어 전체적인 경향성을 논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것에 더해 고려시대 목간의 출토 현황을 참고하면, 이 같은 논지는 더욱 보강될 것이다.

형의 목간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통일신라시대부터 점차 문서목간을 대신하여 종이가 書辭자료로 확대 사용되면서 목간은 점차 물품에 부착하는 꼬리표형(특히 荷札)에 적합한 板材形만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목간의 용도가 축소됨에 따라 그 형태도 단순화된 것이다.

한편, 성산산성 목간과 고려시대 목간은 운반 중이거나 운반된 짐에 부착되었던 하찰목간이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다. 하지만 고려시대 하찰목간은 海底에서 出水되어 完形 遺存率이 높은 반면 성산산성 목간은 그렇지 못하였고, 고려시대 목간은 동일한 장소에서 발견된 유물이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 Ⅲ장에서 성산산성 목간 형태를 짐[荷物]에 부착되는 부위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재분류한 것은 고려시대 하찰목간과의 비교를 염두에 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려시대 하찰목간 만큼은 아니지만 성산산성 목간의 뾰족한 형상[尖形]에 일정한 기능을 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보다 용이한 양자의 비교를 위해 尖形보다는 장방형·홈형과 함께 구멍형 세 가지에 주안을 두어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 앞의 <표 2> 성산산성 목간 형태 통계표와 필자가 이전 연구에서 분류하였던 고려 목간의 형태에 관한 내용⁶²⁾은 양자의 형태 비교에 좋은 자료이다. 해당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성산산성 목간과 고려 하찰목간 형태 비교

구분	장방형	홈형	구멍형	침형
성산산성 목간	22.3%	66.4%	6.8%	4.6%
고려 하찰목간	10.4%	84%	0.8%	3.2%

* 성산산성 목간 분류는 Ⅲ장 내용에 의거하였고, 침형에는 2형과 4형 목간만을 포함시킴.

전체적으로 성산산성 목간에 비해 고려시대 하찰목간의 형태는 장방형과 구멍형의 비율이 줄어든 반면, 홈형이 66.4%에서 84%로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성산산성 장방형 목간(22.3%)은 無痕 목간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2~7형 목간의 제작 이전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려시대 장방형 목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달리 말해 성산산성 목간 보다 짐[荷物]에 부착할 부위를 더 적극적으로 가공하였음을 의미한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율의 增減을 떠나서 좌우 양쪽에 홈을 낸 목간이 한국 고·중세를 막론하고 하찰목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음이 확인된다. 양자의 전형적인 목간 형태(상단 홈형)의 비율도 고려시대 목간이 높은 것(76.8%)을 보면, 하찰목간 형태의 정형화나 규격화가 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62) 한정훈, 2015, 앞의 논문, p.264 <표 6> 고려 목간의 형태 분류 참조. 홈형 84%에서 상단부 좌우에 홈이 있는 전형적인 목간 형태가 76.8%이고, 나머지 형태가 7.2%이다. 나머지 형태에는 상단부 한쪽 홈, 상·하단부 홈, 중간부 홈 그리고 하단부 홈 형 등이 포함된다.

성산산성 목간에서 흠이 하단에, 고려시대 목간은 흠이 상단에 위치하는 차이점이 존재한다.⁶³⁾ 현재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면, 성산산성 목간은 짐에 묶여 고정된 상태에서 목간에 목서를 적었고, 고려 목간의 경우는 목서를 먼저 적은 다음 흠을 묶은 끈으로 짐에 연결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이 더 필요할 것이다.

성산산성 목간에서 6.8%를 차지하는, 본고에서 새로이 설정한 구멍형 목간도 고대 목간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고려시대가 되면 그 비율은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고려시대에 짐에 부착하는 방식이 흠으로 단일화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앞에서 살폈듯이, 삼국시대 구멍형 목간은 荷札목간 뿐 아니라 편철용 문서 목간, 신분 증표용 목간 그리고 呪術用 목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때로는 목간을 재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멍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염두에 두면, 고려시대 하찰 목간에서 부착 부위인 구멍은 거의 사라진 것이나 나름이 없다. 이와 같은 목간 형태상의 변화는 다양한 용도를 가졌던 구멍형 목간의 전통이 통일신라를 거치면서 고려왕조로 전승되지 못하고 목간의 용도가 荷札로 한정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찰목간의 부착 부위로서 흠이 보편화되면서 효용성이 떨어진 구멍은 荷札에서조차 사라지게 되었다.

투고일: 2016. 04. 19.

심사개시일: 2016. 5. 9.

심사완료일: 2016. 6. 2.

63) 성산산성 목간의 전형적인 형태인 3형의 하단 흠형 목간이 고려시대 목간에서 1점(마도2호선 2번 목간) 확인되기도 한다.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 2』.
- 이용현, 2006,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韓國의 古代木簡(개정판)』 .
- 윤선태,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 김성범, 2010, 『羅州 伏岩里 出土 百濟木簡의 考古學的 研究』,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韓國木簡字典』.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IV.
- 이경섭, 2013,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4,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V.
-
- 朴仲煥, 2002, 「韓國 古代木簡의 形態的 特性」, 『國立公州博物館紀要』 2.
- 이수훈, 2004,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의 稗石과 負」, 『지역과 역사』 15.
- 임경희·최연식, 2008, 「태안 청자운반선 출토 고려 목간의 현황과 내용」, 『목간과 문자』 창간호.
- 전덕재, 2008,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신라문화』 31.
- 전덕재, 200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목간과 문자』 3.
- 윤선태, 2012,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 荷札의 再檢討」, 『史林』 41.
- 박지현, 2013, 「백제목간의 형태분류 검토」, 『목간과 문자』 11.
- 윤선태, 2013, 「백제목간의 연구현황과 전망」, 『백제문화』 49.
- 이경섭, 2013,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 연구의 흐름과 전망」, 『목간과 문자』 10.
- 최상기, 2013,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정리현황 검토」, 『목간과 문자』 11.
- 한정훈, 2015, 「동아시아 중세 목간의 연구현황과 형태 비교」, 『사학연구』 119.
- 양석진·민경선, 2015,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신자료」, 『목간과 문자』 14.
-
- 岡内三眞, 1987, 「新案沈船出土の木簡」, 『東アジアの考古と歴史(上)』, 岡崎敬先生退官記念事業會.
- 李成市, 2000, 「韓國木簡연구의 현황과 咸安城山山城 출토의 木簡」, 『韓國古代史研究』 19.
- 平川南, 2000, 「日本古代木簡 研究의 現狀과 新視點-咸安 城山山城출토 목간」, 『韓國古代史研究』 19.
- 友田那々美, 2003, 「古代荷札の平面形態に關する考察」, 『木簡研究』 25.
- 三上喜孝, 2007, 「일본 고대 목간에서 본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특징」,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의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三上喜孝, 2009, 「形態와 記載樣式으로 본 日本古代木簡의 特徵」, 『목간과 문자』 3.

〈Abstract〉

Reclassification of Forms of Ancient Wooden Tablet(Mokgan) and Its Comparison
with Goryeo Wooden Tablet

Han, Jeong-hun

This paper is designed to compare forms of ancient wooden tablet and Goryeo Hachal(荷札) wooden tablet. At first, forms and uses of ancient Mokgans are reviewed to find that the hole-type of wooden tablet was variously used in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Therefore, rectangular, groove and sharp shapes as well as hole-type are also suggested to be included in the class of ancient forms of wooden tablet. In addition, different from ancient one, the use of wooden tablet in Goryeo period was limited to the parcel note[Hachal], so its forms also tended to be simplified.

On the other hand, the Seongsan-Sanseong wooden tablet, a representative Hachal wooden tablet was compared with that in Goryeo period. It is found that the wooden table with left and right side grooved was a typical Hachal wooden tablet during both the ancient and the middle age, indicating that an increase in ratio of hole-type of wooden tablet in Goryeo period means the developments in standardization or normalization of forms of the Hachal wooden tablet. As the groove was generalized as a cutting part to which a parcel was attached in Goryeo period, the hole-type of wooden tablet almost disappeared even in the Hachal.

▶ Key words: Hole-type of Wooden Tablet, Seongsan-Sanseong Wooden Tablet, Parcel, Hachal Wooden Tablet